

계·정·혜, 청소년 교화의 기본철학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과 삼학(三學)

오 늘날 청소년의 도덕문제는 심각하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다. 정치·경제·사회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띠고 있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세계의 앞날이 결코 밝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각국은 청소년 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의 도덕성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첫째, 음주, 흡연, 환각제 복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비행은 그 자체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디딤돌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여 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 담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등의 판매를 강력히 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둘째, 비행과 범죄의 질이 포악화, 잔인화, 집단화, 연소화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지존파', '막가파'의 범죄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성이 있었으며 그것도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초등학교까지 연소화되고 있다.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2>



그림 · 이준석

- 청소년문제 어디서 오나
- ① 감각적 문화 발달
 - ② 도시화·이기주의
 - ③ 서구문화 무비판 수용
 - ④ 계층간의 위화감

셋째,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는 심각하다. 과거에는 청소년 폭력이라고 하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학교는 청소년들의 보호소이며 안식처였는데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신체적' 장애자, 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집단 폭행한다는 것이다. 97년 7월 2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담뱃갑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를 가진 금유를 골라 집단 폭행하는 '뿔뿔게임식' 폭행이 중학교에서 유행하며 그것도 순정히 재미로 폭행을 즐긴다는 것이다. 해괴한 일들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성의식의 변화, 성 개방화, 불경전환 이성교제가 늘어가고 있다. 여중생이나 여고생 및 10대 여성의 출산이 늘고 있다. 미혼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동성연애자들이 조직체를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일이다. 이와 같은 성 문란에 반발하여 순결서약식이라는 행사도 나타나고 있다. 모태학의 경우 순결서약식 참여자가 총학생의 23.7%에 이르고 있다는 흥미있는 말을 들은 바 있다.

다섯째, 효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모와 갈등이 있는 경우 누가 옳은지에 대하여 잘 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 효는 만행(萬行)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으며 부모는 점차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모중경(父母中敬)에서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사회의식이 이기적 경향, 관능적 향락의 경향으로 쏠리고 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남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생각보다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 정직하면 손해 본다 등과 같은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도덕성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문제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고도산업화에 따라 물질주의, 황금만능의 사회가 됨으로 인하여 감각적 문화가 형성되었다. 눈, 귀, 코, 혀, 몸 등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감각적

6바라밀·오계 지킴은 '삼학'의 시발점 "선답아 마음 고요히 하면 지혜 생긴다"

문화의 발달은 도덕성과 같은 정신세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도시화 경향이 급진전됨에 따라 권협한 이기주의에 사로 잡히게 되고 표피적(表皮的) 접촉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셋째, 서구적 가치의 무비판적, 무분별한 수용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서구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적 전통에 의하여 서구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동양에 의하면 동양문화가 있는데 서구의 가치관의 무비판적 수용은 동양 문화도 아니고 서양 문화도 아닌 중심성 없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저 편리한 대로 행동하는 '제멋대로'의 가치관의 기형아가 탄생하였다.

넷째, 권력과 재력을 가진 계층의 과욕, 사치, 낭비, 거만 등은 그렇지 못한 계층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 도덕성 회복의 기본

철학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청소년 지도의 기본철학 수립이 시급하다. 이 기본철학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는 청소년문제 해결의 기본철학을 삼학(三學)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삼학은 불자는 누구인가 지켜야 할 생활의 기본원리이며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을 말한다.

계학은 악을 방지하고 선을 닦음을 말하며 정학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신을 통일하며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함을 말하며 혜학은 고요하게 된 마음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써 진리를 찾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삼학(三學)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다. 계를 지켜야만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나타난다. 또한 지혜로워지면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나쁜 행동은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은 항상 불인과 경계와 공포에 사로잡혀 마음이 고요할 수 없다.

학 중에서 계학과 정학이 이루어지면 혜학은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계학과 정학은 칠보통계(七佛通戒)에도 나타나 있다. 칠보통계는 과거 일곱 부처님이 모두 말씀하셨다는 계(戒)로써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한 일은 받들어서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이 가르침의 전반부는 계학에 해당되며 후반부는 정학에 해당된다.

삼학은 육바라밀(六波羅蜜)에도 나타나 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은 선악(善惡) 즉 계학에 관련되며 선정(禪定)은 정학, 지혜(智慧)는 혜학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불도의 초보 즉 사람 됨됨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가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것은 가책받을 일이다" 등으로 쓰는 가책(阿責)과 '몹시 꾸짖음'의 뜻인 가책(苛責)이다. 앞의 가책(阿責)은 불교에서 나온 단어로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 대승스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하고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다.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율장 중에 <사분율(四分律)>이 있다. 불교의 계율이 제정되는 데에는 수범수제(隨犯隨制)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율을 정한 것이다. <사분율>은 누가 무엇을 저지름으로써 어떤 계율이 제정되었다는 상황을 수록하고 있어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행적과 사회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사분율> 44권에 '가책건도(阿責健度)'가 있어서 가책받을 일에 대한 초기 불교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라는 비구와 노혜라는 두 비구가 있었다. 이들은 싸우기를 몹시 좋아했다.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는 곳에 그들이 가지만 하면 이내 싸움판이 벌어진다. 이런 그들의 비행에 분개한 정정비구들이 참다 못해 부처님께 그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에 부처님은 비구대중을 비상조집하고 두 비구를 가책하는 법과 가책받은 비구의 권리 박탈 범위를 조목조목 제시해 주었다.

한 사람의 잘못을 가책하기 위해서 먼저 대중을 소집한다. 이어 잘못된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 알리고 드러난 비행은 본인과 대중들이 기억하도록 한다. 기억이 되었다고 확인되면 죄에 따른 벌을 준다.

요즘에는 다만 양심의 가책을 증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책은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동료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응분의 징계조치를 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책의 기본정신은 유지되고 있다.

※참고 안길모퉁이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한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정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문화재)과	2년	■주간		
	2년	■주간		
동양화 (繪畫)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3월25일 까지 (일요일도 접수가능)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 1998년 3월 7일 입학식 (동국대내화관)후 정상수업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통신과정 00명

강의시간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학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